

조사보고서

2018년 3/4분기 전북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대응방안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대상 기간	3
3. 조사실시 기간	3
4. 조사대상	3
5. 조사방법	3
6. 조사항목	3
7. 집계방법	3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3
II.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응답업체 분포	5
3. 항목별 경기전망	5
4. 업종별 경기전망	6
5. 지역별 경기전망	6
6. 자금조달 현황	7
III.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대응방안	8
1. 하반기 기업경영 영향 요인	8
2.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8
3.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	9
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	9
나. 최저임금 상승 대응 방안	9
IV. 결론 및 시사점	10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18년 2/4분기(4, 5, 6월) - 실적기간
- 2018년 3/4분기(7, 8, 9월) -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18년 5월 29일 ~ 2018년 6월 12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14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 방문 조사하였으며, 조사표 기입은 간부급에서 기록토록 함

6. 조사항목

- 전반적인 경기실적 및 전망 ○ 업종별·매출유형별·지역별 경기전망
- 신규채용계획 ○ 고용환경변화 ○ 자금조달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라북도 제조업체의 주요업종인 9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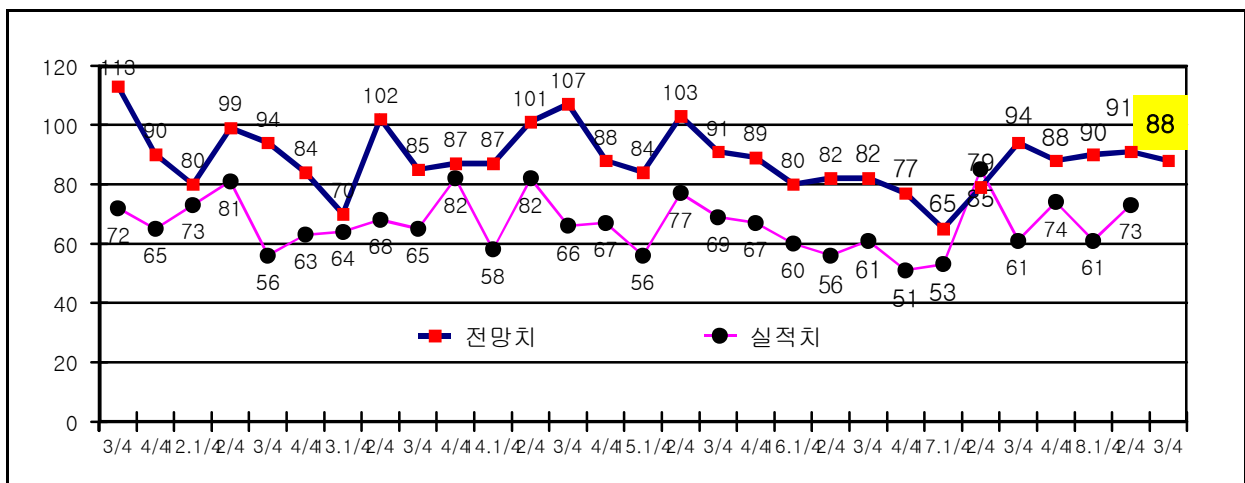
II.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종합전망

3/4분기 제조업체 BSI '88'로 기업경기전망 불투명

-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변수와 더불어 실업률 증가, 내수경기 침체, 고용환경 변화로 지역 제조기업들은 3/4분기에도 경기 하락세가 지속 전망임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14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8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88'로 집계되어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전망치는 2015년 2/4분기 BSI '103'을 기록한 이후 13분기 연속 BSI 기준치 '100'을 밑도는 전망치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8년 2/4분기 실적지수는 '73'로 집계됨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단위 : B.S.I, 전분기대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치	99	94	85	70	102	85	87	87	101	107	88	84	103	91	89	80	82	82	77	65	79	94	88	90	91	88
실적치	81	56	63	64	68	65	82	58	82	66	67	56	77	69	67	60	56	61	51	53	85	61	74	61	73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의 분포를 보면 2/4분기 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가 50.9%(58개)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과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8.4%(21개), 30.7%(35개)로 지난 분기 대비 감소함

【응답업체 분포현황】

구 분	2018년 2/4분기 전망	2018년 3/4분기 전망
호 전	24.8%(26개)	18.4%(21개)
비 슷	41.9%(44개)	50.9%(58개)
악 화	33.3%(35개)	30.7%(35개)
계	100.0%(105개)	100.0%(114개)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이 기준치 ‘100’을 하회함
- 지난 상반기보다 긍정적 전망을 보였던 수출도 3분기에는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18년 분기별 항목별 BSI】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매출(내수)	매출(수출)	영업이익(내수)	영업이익(수출)
3분기	99	97	88	89
2분기	96	105	86	100
1분기	94	104	93	95

4. 업종별 경기전망

- 3/4분기 도내 제조업 가운데 화학(112), 전기전자(108) 업종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 조사되었으나, 이외 업종의 경우 전분기 대비 부정적으로 전망함
- 지난분기에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던 금속기계(87) 업종이 기준치를 하회하고, 전기전자(108) 업종 역시 기준치는 상회했으나 전분기 대비 수치가 크게 하락함
- 특히, 전라북도의 주력업종인 자동차 업종이 올해 들어 계속해서 하락수치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 2018년 3/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나목	화 학	비금속광물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기 타
BSI	95 (71)	92 (71)	86 (100)	112 (93)	56 (71)	87 (116)	108 (125)	76 (94)	100 (100)

※ ()는 지난 2/4분기 BSI 전망 수치

5. 지역별 경기전망

- 2018년 3/4분기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북서남지역(100)을 제외한 전주, 익산, 군산 모두 BSI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산(65)의 경우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를 반영하듯 도내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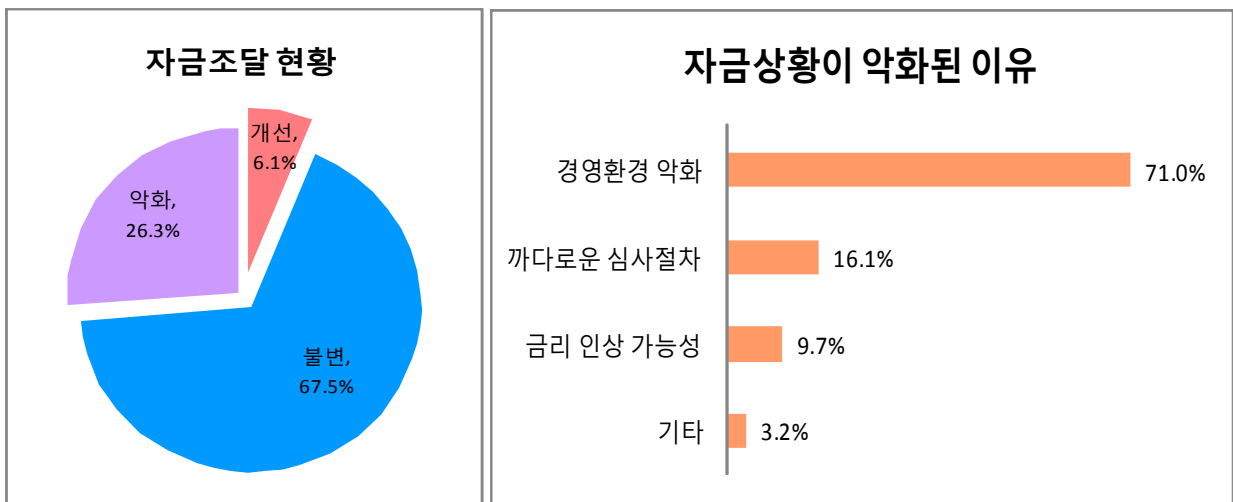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지역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항 목 \ 규 모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체 감 경 기	91	86	65	100
매 출 (내 수)	98	95	85	114
매 출 (수 출)	111	83	77	95
영 업 이 익 (내 수)	93	73	85	93
영 업 이 익 (수 출)	103	78	71	86

6. 자금조달 현황

- 현재 응답기업의 26.3%가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되었다’라고 응답했으며,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유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0%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까다로운 심사절차(16.1%)’, ‘금리 인상 가능성(9.7%)’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어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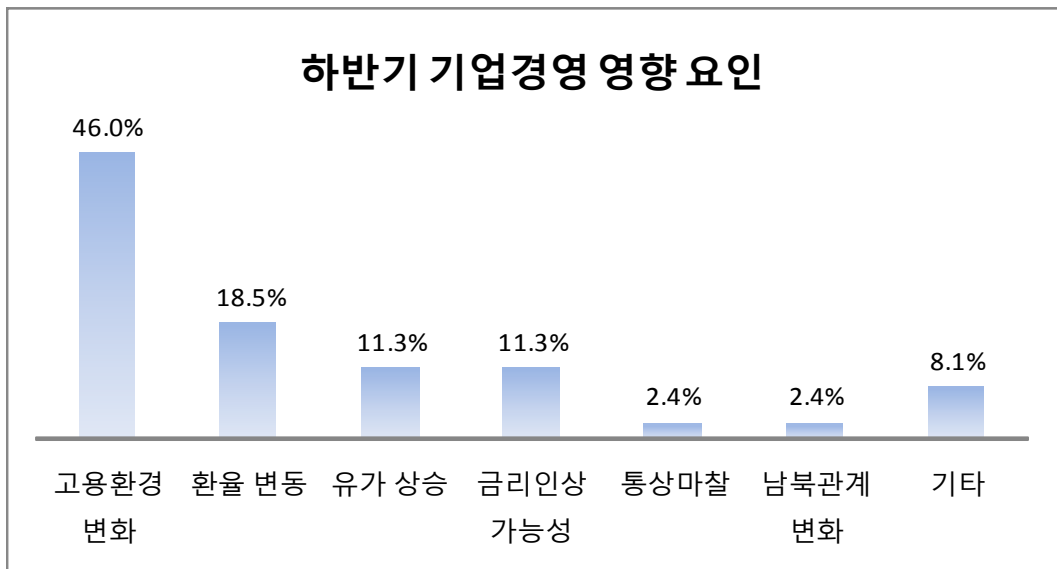


Ⅲ.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대응방안

1. 하반기 기업경영 영향 요인

□ 대내외 여건들 중 우리지역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46.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환율 변동 가능성(18.5%)’과 ‘금리인상 가능성(11.3%)’, ‘유가상승(11.3%)’이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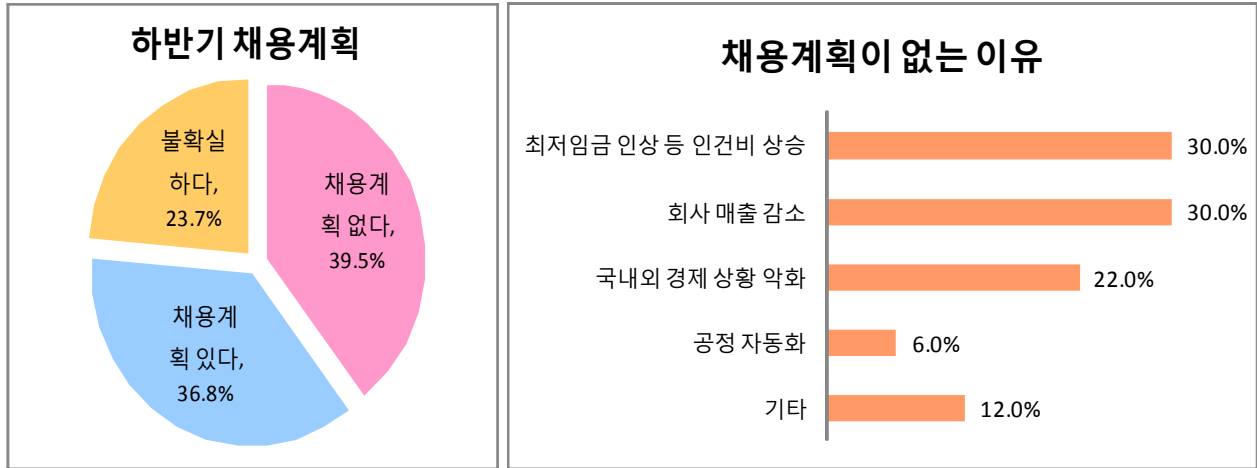
* _____ () 가



2.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 전북지역 기업들은 하반기에 신규 ‘채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39.5%,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 조사되었으며, ‘불확실하다’는 응답이 23.7%로 나타남

□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30.0%)’, ‘회사 매출액 감소(30.0%)’,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22.0%)’, ‘공정자동화(6.0%)’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기타 이유로는 ‘상반기에 이미 채용을 해서’라는 응답도 다수 나타났음



3.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

-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전라북도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50.9%, ‘매우 크게 부담 된다’는 응답이 42.1%,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환경 변화에 느끼는 부담 정도】

구 분	매우 크게 부담	어느 정도 부담	별다른 부담 없음	전혀 부담 없음
응답률(%)	42.1	50.9	7.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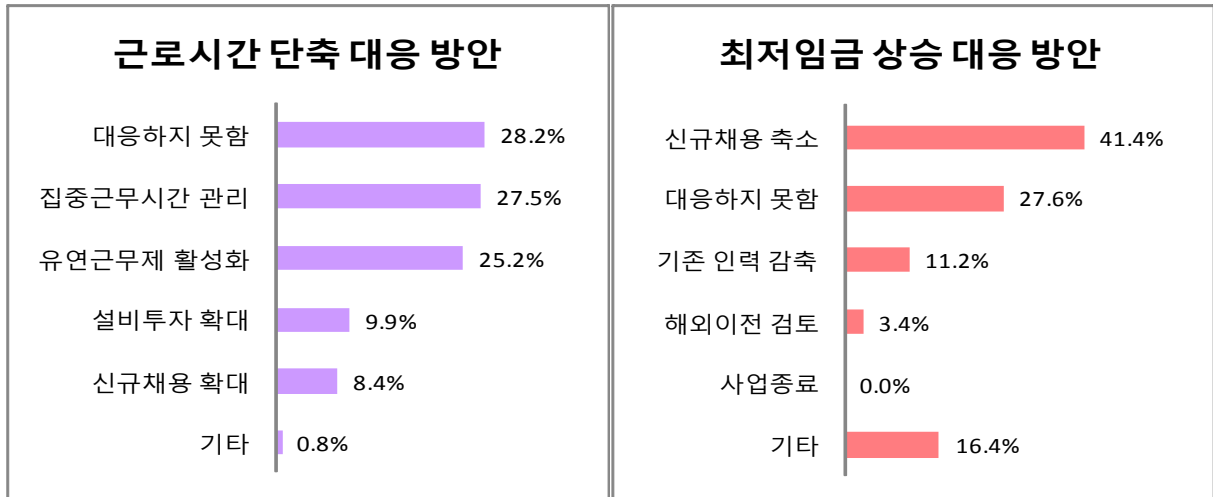
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

-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고, ‘집중근무시간을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27.5%,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응답이 25.2%로 높게 나타남

나. 최저임금 상승 대응 방안

-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응답이 11.2%로 조사되어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됨

-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률도 27.6%로 집계되어 상당한 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타 의견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다’ 등의 임금개선을 시행하겠다는 응답과 ‘근무시간 단축’, ‘교대근무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근무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의견이 다수 조사됨



IV. 결론 및 시사점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익산 넥솔론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 공장 폐쇄 등의 여파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주력 업종인 금속기계와 자동차 업종이 부진을 예상하면서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전라북도의 기업들은 최근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금리인상, 환율변동, 유가상승과 같은 외부변수와 마주하면서 경기상승 기대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반영하듯 우리지역 기업들은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신규채용 계획을 줄이고 기존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조사되어 노동시장의 수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인력 감축과 신규채용 축소를 고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지원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집중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응답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있는 삶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교대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의견도 조사되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보임

-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나섰지만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미래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